

세계적인 '케이(K)-농업' 브랜드 창출, 민간기업 성장 지원 강화

- 민간기업 대상 「KRC 해외진출 지원 플랫폼」 역할 톡톡 -

한국농어촌공사는 26일 케이(K)-농업 확산과 민간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KRC 해외진출 지원 플랫폼」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공사가 보유한 케이(K)-농업 기술력을 바탕으로 농식품 국제협력개발(ODA)사업 전담 시행기관으로 선정돼 해외사업 확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특히, 아프리카 8개국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는 등 아프리카 국가들의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K-라이스벨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7개국 8개 사업 635억 원 규모의 해외사업을 신규 발굴했다. 또,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민간기업 대상 공사의 관개배수 등 기술력 지원을 강화해 306억 원 상당의 해외기술용역을 공동 수주하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공사는 올해도 농업 국제협력개발(ODA) 중추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농업 국제협력개발(ODA) 최초 농지조성·종자개발 등 개별사업을 통합한 프로그램형 사업추진에 힘쓰고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발굴과 성과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민간기업의 안정적인 해외사업 진출·정착을 위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자금지원 규모·범위를 확대하고 2027년까지 현지 국제협력개발(ODA) 데스크 7개소를 단계적으로 늘려 현지 정보와 사업 교류를 강화하

는 등 농식품산업의 해외사업 경쟁력도 높여 나갈 예정이다.

박태선 기반사업이사는 “공사는 대한민국의 선진 농업기술을 필요로 하는 세계 여러 나라에 100여 년의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하고, 국내 농산업의 해외 진출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글로벌사업처 글로벌농업개발부	책임자	부 장	김형남 (061-338-6471)
		담당자	대 리	김명훈 (061-338-6477)